

도내 건설수주액 46% 급감 건설업계 휘청

지난해 12월 3562억원 불과

도내 건설업계가 수주난에 빠지며 건설경기가 흔들리고 있다.

2일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'강원도 산업활동동향'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건설수주액은 3562억6600만원으로 전년동월(6610억6500만원) 대비 3047억9900만원(46.1%) 감소했다. 주요 일반건설업체의 전국 건설공사수주액 24조878억원 가운데 강원지

역은 1.5%수준에 그치는 규모다.

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에서 신규주택, 도로·교량, 기타토목 등의 수주 감소가 이어지며 2834억9000만원을 기록, 전년동월(3123억8700만원)보다 288억9700만원(9.3%) 줄었다.

민간부문에서는 오락·숙박시설, 신규주택, 공장·창고 등의 수주가 줄면서 같은 기간 2749억7800만원에서 727억7600만원으로 2022억200만원(73.5%) 축소됐다. 권소담